

출장결과보고서

2008. 4. 10(목).

호주 ABARE 주최, Outlook Conference 2008 참석

출 장 자 : 농업관측정보센터 부연구위원 김배성
출장기간 : 2008. 3. 2(일) - 3. 7(금)
출장지역 : 호주 캔버라

I. 출장 개요

1. 출장 목적

- 호주 ABARE가 주최한 Outlook conference 2008 참석 및 ABARE의 원예부문 모형관련 자료조사
 - ABARE Outlook conference 참석을 통해 농업부문에 대한 동향 파악 및 우리 연구원 관측정보센터가 매년 개최하는 전망대회의 발전적 개최를 위한 새로운 아이디어 얻고자 함.
 - ABARE의 원예부문 모형담당자 면담을 통해 ABARE의 모형의 구조 및 운영기법 등에 대한 정보 및 관련자료 조사, 향후 우리 연구원 과수부문 관측 및 전망작업에 참고자료로 활용

2. 출장 개요

- 출장기간: 2007년 3월 2일 ~ 7일 (4박 6일)
- 출 장 자: 농업관측정보센터 부연구위원 김배성
- 출장 주요일정 및 면담자
 - Outlook conference 2008 참석
 - 경제전망, 곡물부문, 생명공학, 무역분야, 식품안정성 분야 등에 초점을 두고 참석
 - ABARE에서 운영하고 있는 모형 전반 및 과수원예부문 모형

에 대해 설명해줄 담당자와 면담

- Brenda Dyack, Senior Economist, ABARE(원예분야 모형)
: 61-2-6272-2351, bdyack@abare.gov.au
- Ahamed Hafi, Senior Economist, ABARE(원예분야 모형)
: ahafi@abare.gov.au
- Yeon Kim, Senior Economist, ABARE(ABARE 모형 전반)
: 61-2-6272-2136, yeon.kim@abare.gov.au

○ 세부일정

일 자	주요 내용
3월 2일	서울→호주 캔버라
3월 3일	캔버라 도착, ABARE 담당자(전망모형) 면담
3월 4일~5일	outlook conference 참석
3월 6일	ABARE 담당자(과수원예분야) 면담
3월 7일	호주 캔버라 → 서울

II. 출장 주요내용

1. Outlook conference 2008 참석 (3월 4~5일)

□ 회의 개요

- 3월 4~5일 양일간에 걸쳐, 호주 캔버라에 위치한 컨벤션 센터에서 개최됨

○ 참가인원은 사전등록자 415명을 포함해서 행사당일 약 1,000여명 참석

○ 회의등록비

- 일반등록자 A\$1,180(4일 저녁만찬 포함), 조기등록자(1월 18일까지) A\$990
- 1일 등록자 A\$600, 4일 저녁 만찬참가비 A\$105

* KREI는 ABARE와 MOU 체결기관으로 출장자를 무료로 참석케 해주었음.

□ 발표 주제

○ 지난해 12월 새로 취임한 Kevin rudd 호주 수상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2일간 진행된 행사는 경제개관(ecnomomic overview)을 포함한 21개 분야에서 총 63개 주제를 다룸.

- 경제개관, 농가경제, 원예, 설탕, 수자원, 곡물, 수산, 식품, 농업관개(irrigated agriculture), 육류, 생명공학, 산림자원, 지역농업, R&D, 낙농, 기후변화1, 기후변화2, 무역, 양모(wool), 식품안전, 와인산업
- 각 분야별 3개 주제씩 발표, 제 1일째 12개, 제 2일째 9개 주제를 배정, 행사 첫째 날 발표를 집중하였음.

○ 행사 주요내용

- 제 1일 오전 세션
 - 9:00~ 9:30 ministerial address
 - 9:45~11:00 economic overview
 - 11:00~11:30 morning tea
 - 11:30~12:45 farm performance/horticulture/sugar
- 제 1일 오후 세션
 - 2:00~3:30 water/grains/fish/food
 - 3:30~4:00 afternoon tea
 - 4:00~5:30 irrigated agriculture / meat / biotechnology /
forestry
- 제 2일 오전 세션
 - 9:00~ 9:30 ministerial address
 - 9:45~11:00 challengers for regional australia / R&D /
dairy
 - 11:00~11:30 morning tea
 - 11:30~12:45 climate change1 / trade and agriculture /
wool
- 제 2일 오후 세션
 - 2:00~ 3:30 climate change2 / biosecurity and food safety
/ wine grapes

※ 주제별 상세한 발표자료(PPT포함)는 아래에서 참조할 수 있음.

- <http://www.abareconomics.com/outlook/>

- 금번 행사에서는 지난 7년 동안 지속되고 있는 호주지역 가문의 심각성으로 수자원, 농업관계 등의 주제를 심도있게 다루었고, 가문과 관련이 있는 기후변화 분야도 두개로 세션을 나누어 진행되었, 호응도도 매우 높았음. 이와 더불어 최근 곡물가격 급등 및 바이오연료와 관련 있는 곡물, 생명공학, 설탕 세션의 참석율과 호응도가 특히 높았음.

□ 행사 진행

- 금번 행사에서 개회사를 호주 수상이 한 점과 수자원, 생명공학, 산림자원, 무역과 농업 등 주요 세션의 기조연설을 해당부처 장관이 한 점이 인상적이었음. 장관들의 연설 이후, 질의응답 시간을 갖고, 다양한 질의에 대해 각 장관들이 상세히 응답을 하였던 점도 인상적이었음.
- 행사 첫째 날 모든 참석자가 참관하는 경제개관 세션내 3개 발표주제중 “중국경제 전망과 세계적 함의”라는 중국 관련 주제 발표와 질의응답에서 호주의 중국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엿볼 수 있었음.
- 경제개관, 농가경제, 식량, 생명공학 등 주요 주제의 사회를 호주에서 유명한 저널리스트인 Michael Pascoe 등에게 맡겨 진행한 점도 참석자와 행사의 관심과 호응을 높일 수 있는 방안으로

사료되었음.

- 통계국 등 정부관련 기관 및 스폰서 회사들의 홍보부스가 운영되고 있었는데, 한 부스당 행사장 로비에 1~2 평 정도 규모였고, 이러한 스폰서를 통해 행사 예산의 일부를 충당한다고 함.
- 행사 양일동안 12:45~2:00 점심시간에 행사장 로비에 차, 음료, 빵 등 간단히 먹을 수 있는 점심이 무료로 제공되었음(뷔페식).

2. 모형 및 원예분야 담당자 면담 (3월 6일, ABARE 회의실)

□ ABARE의 모형 운용상황

(면담자: Dr. Yeon KIM, Dr. Brenda Dyack, Dr. Ahamed Hafi)

- 현재 ABARE에서 품목중심의 부문균형모형과 일반균형모형이 동시에 운용되고 있으나, 최근 품목모형 보다 일반균형모형이 정책분석에 보다 많이 쓰이고 있는 추세라고 함.
- 일반균형모형으로 다양한 정책분석에 응용되고 있는 모형인 GTEM(global trade and environment model)은 GTAP모형을 기초로 구성된 것으로, 19개 품목, 23개 지역으로 구분되었고, GTAP과는 달리 동태분석(recursive dynamic model)도 가능하도록 구성되었음.

- GTEM을 개발·갱신하는 전담인력은 3명이고, 모형을 통한 분석이 필요한 부서에서 1~2명의 인력을 배치·운용하는 방식으로 모형이 운용되고 있었음.
- 호주내 지역별 일반균형모형으로 ausregion이라는 모형은 지역별 CGE모형으로 GTEM과 상호연계해서 운용되고 있음. 이 모형은 특정 정책에 대한 지역별 경제효과 분석에 응용되고 있다고 함.
- ABARE는 태국, 싱가포르, 피지 등을 위해 모형 개발 및 개발을 위한 논의를 한 바 있고, 향후에도 모형 개발 및 운용과 관련된 공동연구에 참여할 의사가 있다고 함. 한국과도 공동연구의 의사가 강한 것으로 파악됨.
- 과수분야 품목별 수급모형이 별도로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지 않고, 살구, 복숭아, 와인 등 몇몇 주요 품목에 대한 생산부문 분석을 위해 계량경제모형을 구성·이용하고 있다고 함.
 - 품목모형에 치중하였던 과거와는 달리 현재에는 일반균형모형에 치중하고, 품목팀에서는 이에 필요한 정보들을 지원하는 것이 실정이라고 함. 품목팀에서는 ABARE의 이러한 방향에 다소 우려하고 있었음.

4. 시사점

- 상기 보고와 같이, ABARE의 전망대회는 오랜 역사와 국가적인 관심속에 확고히 입지를 잡은 것으로 파악됨. 특히, 이슈가 되는 주제 및 연사의 선정, 수상 및 해당 부처 장관들의 기조연설이 인상적이었음. 우리 연구원도 행사의 내실과 위상 제고를 위해 이와 같은 사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사료됨.
- 홍보부스 중에서 참가자들에게 통계관련 책자 및 정보를 제공하는 부스는 참가자의 직접적인 참여를 높일 수 있는 유용한 코너로 사료되었음. 연구원이 직접 통계관련 홍보부스를 운영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 우리 연구원 전망대회와 비교할 때, 행사 참석율과 행사진행면에서 우리 연구원 전망대회가 보다 나은 것으로 사료되나, 주제 선정, 연사배정, 정책적 관심, 언론분야 관심 등의 면에서는 ABARE의 전망대회가 보다 앞서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이 부분 보완을 위한 관심과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
- 모형운용과 관련해서, ABARE는 부분균형모형 운용 수준을 넘어 일반균형모형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었고, 이미 모형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고 개선하는 수준에 이른 것으로 파악됨. ABARE 기관차원의 관심과 지원속에서 모형개발 및 갱신, 모형의 운용 및 응용 등 조직, 인력 등의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었음. 최근 양자간 혹은 지역간 FTA 등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는 상황

에서 일반균형모형의 구축·운용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큰 것으로 사료됨.

[참고] ABARE 행사 및 숙소 전경



<호주 품목별 전망 발표 전경>



<중국 경제 전망 발표전경>



<홍보 부스>



<홍보 부스>



<참석자 명찰 배부>



<안내 및 등록데스크>



<행사장 건물>



<호주국립대학내 숙소>

끝.